이런 여름을 기다렸다…7월·8월 한국영화 대작 쏟아진다

코로나 발생 3년만에 여름 극장가 활기
최동훈·김한민·한재림 등 흥행감독 신작

한국영화계에서 여름방학 성수기는 국내 슈퍼스타와 최고 흥행 감독이 총집결하는 자리였다.

관객에게도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극장에 가서 매주 수요일에 나오는 한국영화 최신 개봉작을 보는 게 일상이었다.

이 문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라졌다. 관객이 영화관을 찾지 않자 여름방학을 노리고 개봉하는 영화도 사라졌다. 그리고나서 3년. 이제 그때 그 여름이 다시 찾아온다. 올해 7월과 8월, 스타 배우들과 스타 감독들이 다시 총출동한다.

◆한 번 더 1000만?

포문을 여는 건 '외계+인'이다. 이 작품은 최동훈 감독이 7년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최 감독은 '암살'(1270만명) '도둑들'(1298만명) 2편 연속 1000만 영화를 내놓은 국내 최고 흥행 감독이다. 만약 그가 이번 작품으로 다시 한 번 1000만 영화를 만들어내면 국내 유일 3개 작품 연속 1000만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외계+인'은 순제작비(홍보 비용 등을 제외하고 영화를 만드는 데만 쓴 비용) 400억원을 들여 1부와 2부로 제작한 대작이다. SF 판타지무협 영화로, 고려 말 신검(神劍)을 손에 넣으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 안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최 감독 영화가 언제나 그랬듯 이 작품에도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김태리·염정아·류준열·김우빈·소지섭·조우진·김의성 등이다.

지난달 초 공개된 '외계+인' 예고편을 본 관객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신선하다"는 반응과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아무래도 각종 장르가 뒤섞인 작품이다보니 최 감독의 이전 작품보다는 일단 호불호가 나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영화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일단 뚜껑이 열리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거부감은 빠르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외계+인'은 오는 20일 개봉한다.

◆역대 흥행 1위 영화의 후속작

'외계+인' 개봉 후 딱 일주일 뒤에 '한산:용의 출현'(7월27일)이 나온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다룬 작품이다. 2014년 영화 '명량'으로 1761만명을 끌어모으며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영화를 탄생시킨 김한민 감독의 새 영화다. 김 감독은 '명량' 이후 '이순신 3부작'을 기획, '한산:용의 출현'과 '노량:죽음의 바다'를 만들었다.

이 영화 역시 약 300억원이 투입된 대작. '명량'보다 규모가 더 커졌고, 컴퓨터그래픽 이미지(CGI) 효과 등도 더 정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진도 더 확대됐다. '명량'이 사실상 최민식 혼자 이끈 작품이었다면, '한산:용의 출현'은 이순신 역을 맡은 박해일을 비롯해 변요한·안성기·손현주·김성균·김성규·김향기·택연·박지환·공명 등이 출연해 극에 입체감을 줬다.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관객은 최민식의 이순신과 박해일의 이순신이 어떻게 다를지 눈여겨 볼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해상 액션 장면이다. 한산대첩에서 그 유명한 학익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김 감독이 어떻게 연출했을지 관심이 모인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역시 흥행이다. 역대 흥행 1위 영화의 후속작이라는 부담감을 '한산:용의 출현'이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 조합은 못 참지

다시 일주일 뒤엔 '비상선언'(8월3일)이 개봉한다. 이 영화의 최대 강점은 역시 배우다.

일단 전도연·송강호·이병헌이 나온다. 이 세 명의 이름만 봐도 벌써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김남길·김소진·박해준·임시완까지 출연한다. 이쯤되면 도대체 '비상선언'이 무슨 영화길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다 모였는지 궁금해진다.

'비상선언'은 '관상'(2013)의 한재림 감독이 내놓은 신작이다. 테러 용의자가 탄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는 게 이 작품의 얼개다. 비행기 밖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과 비행기 안에서 테러 공포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는다.

송강호가 테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를, 이병헌이 딸과 함께 비행기에 탄 남성을, 전도연이 이 사건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 역을 맡았다.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항공재난영화라는 점이 우선 관심을 모은다. 규모가 큰 재난영화답게 제작비 역시 약 25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기도 하다. '관상'(913만명) 이후 '더 킹'(531만명)까지 흥행에 성공시킨 한재림 감독이 이번에도 관객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오징어 게임의 영광을 이어받아

마지막 타자는 다음 달 10일 개봉을 확정한 '헌트'다.

이 영화는 배우 이정재가 주연은 물론이고 연출까지 맡으면서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정재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거대한 성공을 거둔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헌트'의 제작비는 약 200억원이다.

대한민국 최고 배우 중 한 명이긴 해도 감독으로는 신인인 이정재의 영화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헌트'에 이정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엔 이정재의 '영혼의 단짝' 정우성도 나온다.

두 사람이 투톱 주연을 맡은 건 1999년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만이다. 청춘을 대표하는 스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영화팬의 기대감이 크다.

'헌트'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 박평호와 김정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가 박평호를, 정우성이 김정도를 연기했다.

이밖에 전혜진·허성태·고윤정 등이 출연했다.

정형돈·안정환, 이판사판 당구 대결

뭉친프로젝트가 첫 예능물 '노매너 스포츠 : 동네 당구'를 선보인다.

뭉친프로젝트는 개그맨 김용만, 정형돈과 MC 김성주, 전 축구선수 안정환이 설립한 콘텐츠 기획사다. 네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MC도 맡는다.

'노매너 스포츠…16부작'

노매너 허용 당구장을 열고, 프로 당구 선수들과 승부를 벌인다. '프로선수 멘털 강화 프로젝트' 아래 기상천외한 노매너 공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3쿠션 4대 천왕으로 꼽히는 강동궁, 세계3쿠션 월드컵 우승자 조재호, 포켓볼로 세계를 제패하고 3쿠션까지 섭렵한 김가영, 캄보디아 국민 영웅 스롱 피아비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정식 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규칙과 노매너 공작에 "이런 당구는 없었다"며 입을 모은다.

MC 네 명의 당구 실력도 기대를 모은다. 김용만은 당구 경력 30년을 자랑하며, 정형돈은 재야의 당구 고수로 불린다.

노매너 스포츠는 총 16부작이다. 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스포티비2(SPOTV2),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스타티비(STATV)에서 방송한다.

뉴시스

서현 "소녀시대 8인8색 비글미 보여줄 것"…'소시탐탐'

그룹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 영, 수영, 윤아, 서현이 '소시탐탐'을 통해 팬들과 만나는 소감과 관전 포인트를 모두 공개했다.

먼저, 티파니 영은 완전체 예능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소감을 전했다. "5년 동안 기다려준

오늘 JTBC 첫 방송

팬들을 위해 멤버들과 매니지먼트, 제작진 모두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준비했다 팬들에게 사랑과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진심어린 마음을 드러냈다.

수영은 "올해만큼은 저희만을 위한, 저희만 나오는 예능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8명의 스케줄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소시탐탐'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다양한 예능프로그램과 콘텐츠에 출연하며 많은 매력을 보여줬던 만큼 '소시탐탐'을 통해 볼 수 있는 소녀시대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서현은 "역시 소녀시대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한 저희의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모습과 8명이 뭉쳤을 때의 비글미를 기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아는 "저희가 모여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다 저희끼리만 모아놔도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다 늘 보던 모습의 소녀시대지만 한결 성숙해진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

소녀시대의 밝은 에너지가 엿보이는 현장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티파니 영은 "현장 분위기는 늘 에너지 넘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촬영 내내 너무 웃어서 다음 날 광대가 아플 정도로 힐링 그 자체다"라며 "촬영 끝난 다음 날까지 여운이 남아서 단체 채팅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시탐탐'의 관전 포인트를 묻자 수영은 "소녀시대만의 색깔"을 꼽으며, "저희한테서만 볼 수 있는 화기애애하고 에너지 넘치는 소녀시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티파니 영은 '모두가 다시 만나는 소녀시대', 윤아는 '멤버들과의 조화', 서현은 '멤버 개개인의 매력과 하나로 뭉쳤을 때 배가되는 매력'을 관전 포인트로 언급했다.

'소시탐탐'은 오는 5일 오후 9시 JTBC에서 첫 방송된다.

효린, 18일 '아이스'로 컴백…여름엔 '얼음'

원조 서머퀸 그룹 '씨스타' 출신 아티스트 효린이 돌아온다.

소속사 브리지는 4일 0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효린의 세 번째 미니앨범 앨범명인 '아이스'를 공개했다.

'아이스'는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얼음처럼, 여름을 떠오르게 만드는 음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쿨하지만 따뜻한 효린의 모습도 투영된다.

공개된 사진에는 효린이 은발의 머리로 변신해 모든 걸 얼려버릴 만큼의 강렬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다.

앞서 효린은 새 앨범 '아이스'의 여섯 번째 트랙이자 '퀸덤2' 파이널 곡 '와카 붐(Waka Boom)'의 스페셜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한편 '아이스'는 오는 18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위너, '홀리데이' 전곡 일부 공개…"우리만의 매력 담았다"

피지컬 음반 8일 출시 예정

그룹 위너(WINNER)가 컴백을 하루 앞두고 전곡 음원 일부를 공개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블로그에 위너의 네 번째 미니앨범 '홀리데이(HOLIDAY)' 샘플러를 게재했다. 곡별 특징은 물론 4인 멤버들의 유쾌한 작업기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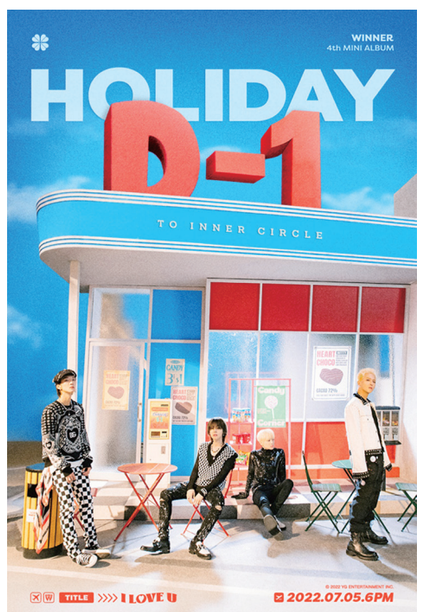
가장 먼저 타이틀곡 '아이 러브 유(I LOVE U)'의 핵심 후렴구가 귀를 사로잡았다. 사랑에 빠진 감정과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흥겨운 멜로디가 전해져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했다.

다음 트랙에 배치된 '10분'은 레트로 풍의 유로댄스 팝 사운드의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10분 안에 달려가겠다는 달콤한 노랫말이 더해졌다.

이어 앨범과 동명의 트랙 '홀리데이'는 섹시하고 세련된 뭄바톤 스타일의 곡으로 하우스풍의 레게톤 리듬이 위너 멤버들의 개성있는 음색과 어우러졌다.

아울러 피아노와 하모니카 조합이 따뜻한 감성의 곡 '집으로', 심플한 플럭(pluck) 테마 소스와 808 드럼에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 궁합이 잘 어우러진 '패밀리(FAMILY)', 편안한 바이브와 코러스 라인이 매력적인 '새끼손가락'이 차례로 담겼다.

위너는 "수록곡 하나 하나에 우리만의 매력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듣는 분들도 함께 즐기면서 기분 좋은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홀리데이'는 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멤버들은 1시간 앞서 위너 유튜브 채널과 틱톡을 통해 동시 진행되는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팬들을 만난다.

피지컬 음반은 8일 출시된다.